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 열왕기상 6:1-10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루를 보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침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은혜의 찬양 225장)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2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찬송가 436장)

-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 산전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말씀 읽기 열왕기상 6:1-10

-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1)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 이며
-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불박이 창문을 내고
-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 방들을 만들었으니
-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서까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본문 배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시를 따라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세심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규례와 방식에 따라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세워 갔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 주신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확장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각 건물의 규격이 정확한 수치로 떨어진 것도 성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계획대로 지어졌음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과 방이 말씀을 토대로 세워졌고, 심지어 성전을 짓는 데에 사용된 재료까지도 모두 다 말씀을 기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자 했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계속 세워 갔고, 하나님이 주신 지시대로 성전의 구조와 방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돌 하나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성전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니다.

말씀 관찰

1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언제이며 목적은 무엇이었나요?(1절)

답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이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에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해설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지 480년 되던 해에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고백하며, 지금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때라고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다윗이 이미 준비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성전 건축을 진행합니다.

2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나요?(7절)

답 건축 현장에서는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은 돌을 사용했기 때문에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채석장에서 돌을 완벽하게 다듬은 후 건축 현장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미리 치수에 맞춰 깎아 온 돌들을 조립만 했기 때문에, 정이나 망치 같은 철 연장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끄러운 철 연장 소리를 방지함으로써 건축 현장의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전에 세상에서 연단되고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9-3 네가지금이성전을

열왕기상 6장 12절

♩ = 110

작곡 조미진

Ab/Bb EbM7 Fm7 Ab/Bb Gm7 C7 Fm7

네가 지 금 이 성전을 건 축 하니 네가 만 일 내 법도를 따 르 며

5 Fm7 Ab(add9) Ab/Bb Gm7 C7 Fm7 F/A Ab/Bb

내 올레 를 행 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 대로 행 하 — 면

10 Ab+ EbM7 Fm7 Ab/Bb Gm7 C7 Fm7

내가 네 아 버지 다윗 에 게 한 말 을 네 게 확 실 히 이룰 것 이 요

15 Fm7 Ab(add9) Ab/Bb Gm7 C7 Fm7 Ab/Bb Eb

확 실 히 이룰 것 이 요 열 왕 기 상 육 장 십 이 절 아 멘 아 — —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어진 평화와 안정을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